



[한국금융신문 원충희 기자] KDB대우증권(사장 홍성국)은 지난 16일, KDB대우증권 본사에서 유동식 스마트금융본부장과 우대성 프리서비스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로보어드바이저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제휴를 맺은 프리서비스코리아는 홍콩에 본사를 둔 프리베 파이낸셜의 한국법인이며 시스템과 빅데이터에 기반해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KDB대우증권은 프리서비스코리아와 고객 성향을 파악해 모든 고객에게 100%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유동식 KDB대우증권 스마트금융본부장은 “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 해외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를 국내 투자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가진 국내외 다양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과 MOU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우증권은 지난 14일 15일 에이서투자자문, 씨미트투자자문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이서투자자문은 퀀트 금융공학에 의한 시스템에 특화돼 있으며 씨미트투자자문은 리스크 관리전략과 소수 핵심컨셉에 집중투자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다.